신앙의 abc '역방향 포지셔닝'

(역대하 20:20~37)

20.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abc '역방향 포지셔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신앙의 abc '역방향 포지셔닝'

우리는 성경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의 내용을 배우고 익히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내 손에 잘 맞는 신앙의 진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초이면서도 복음 신앙의 진수를 삶에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방향 포지셔닝(positioning)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스신화에는 없고 로마신화에만 나오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누스(Janus)'라는 신으로서 들락날락하는 문(門)의 수호신입니다. 문은 어느 쪽에서 보든 앞뒤가 없듯이 야누스는 공평하기 위해 얼굴이 앞뒤로 붙은 신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육신의 얼굴을 가졌던 야누스의 얼굴과 다른 점은 사람의 얼굴은 하나는 육체의 얼굴이고 또 하나는 마음의 얼굴입니다. 이 점에서 바로 신앙의 abc가 성립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몸과 마음을 역방향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abc이고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몸과 마음의 두 얼굴이 한 방향을 향하는 상태

가 불신앙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취하는 방향에 대해서 마음의 얼굴이 역방향을 취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을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역방향 포지셔닝을 어떻게 취할 수 있고, 역방향 포지셔닝을 취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그렇게 산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가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기가 막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 역사 속에 이렇게 전쟁에 임한 기록은 없을 것입니다.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적군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큰 무리의 연합군을 형성하여 예루살렘에서 고작 8km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이들을 마주하여 드고아 들로 나간 유다는 군대 앞에 성가대를 앞세웁니다. 이것은 작전도 아니고 전술도 아닙니다. 일반 전쟁사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종종 나팔이나 북이 동원되어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은 있었지만, 성가대가 군대 앞에 서서 적진을 향해 진군하는 일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만약 칼과 창을 든 적군들이 쇄도해 들어온다면 인간방패처럼 서 있던 무방비 상태의 성가대는 전멸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전쟁에 임하는 대열이지만 전술이 아니라 신앙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신앙고백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열을 갖춤으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보다 더 급박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민인 유다 나라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반응할 대상은 칼과 창을 든 큰 무리의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우선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가대가 군대보다 앞선 대열의 모습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우선이다 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20절에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역방향 포지셔닝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신앙의 abc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앞부분에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이 금식기도를 통해서 도달한 지점이 바로 역방향 포지셔닝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 나갈 때에 육체의 얼굴로 마주대하는 것

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에 의해서 마음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군대는 육체의 눈으로 적군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에서는 이러한 적들을 맞이하여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몸은 적군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은 적들에게서 등을 돌린 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여호와 신뢰에 도달하게 되자 그 결과 역방향 포지셔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할 때에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문제가 심각하고 급박할수록 금식하는 횟수가 잦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역방향이 아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불신앙 상태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부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에 문제가 어렵더라도 집에는 금괴가 쌓여있다면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몸은 사업 현장에 있지만 마음은 금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끝내 문제를 바라본다면 그 문제의 영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불행을 하나님께서 좌우하신다고 믿는다면 육체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에서 등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유다의 군대가 몸은 적군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마음은 역방향 포지셔닝을 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신뢰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해결 받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내가 결정한 해답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입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것은 금식도 기도도 될 수 없습니다. 불신앙 그 자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금식을 통해서 문제가 주어진 상태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기도는 십자가 생활화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제에 사로잡혔던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결정한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역방향 포지셔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몸이 접하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은 십자가 기도를 통해서 죽음으로서 예수님의 방향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성가대를 앞세우고 적군을 향해 가는 여호사밧과 그 군대의 모습입니다. 몸은 적군을 향해 나가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도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화이트 찬양이라면, 적군을 향한 두려움의 찬양은 블랙 찬양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남한 사람들이나 미국이 김정은의 핵무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김정은에게는 찬양이 됩니다. 적에 대해서 두려워함은 곧 적에 대한 찬양이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상황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곧 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건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될까 두려워한다면 자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역방향 포지셔닝이 일어나야 합니다. 몸이 보는 것을 마음으로도 같이 본다면 우리 마음은 언제나 몸이 보는 것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방향을 취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것을 본문 22~2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라고 합니다.
세일 산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곧 마온의 군대입니다. '복병을 두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도 세일 산에 거주하던 마온의 군대가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해 마온 사람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내분이 멈추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계속한 끝에 서로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17절을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14절에서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앙의 abc입니다.
육체의 눈이 보는 삶의 현장을 내 마음이 등진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몸이 마주치는 많은 사람과 대상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마음이 그것들에게 함께 따라다니며 괴롭고 고통스럽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꼭 붙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몸으로 접하는 것들이 마음까지 침투해 들어올 때에 사로잡힌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역방

향을 취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육체는 역방향으로 이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에, 육체가 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의 총알이 발사되는 총구가 됩니다. 육체의 눈이 보는 대상은 과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아내라는 과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의 총알이 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사장님을 대하면서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면, 사장님이라는 과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총알이 발사되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의 총알이 백발백중하는 모습입니다.
육체로 마주 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역방향을 취하고 하나님께로 갈 때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의 과녁에 발사되어 적들이 진멸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진멸하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 앞에서 마음이 역방향을 취함으로서 자녀에게 사로잡혔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방향을 취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자녀라는 과녁을 향해 발사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하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발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을 들고 으르렁대고 있는 적군을 향하여 성가대를 앞세운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힙니다. 성가대를 앞세운 이유는 곧 몸은 적군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역방향 포지셔닝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식기도였습니다. 금식기도의 내용은 곧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급박한 상황에 마음이 사로잡히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그러한 마음을 죽이기 위해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문제의 해답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답을 설정해 놓고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앞에서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기도는 문제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함에 대해서 죽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되고, 몸이 만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적중하는 과녁이 되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abc이고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가 이것 이상으로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문제보다 먼저 보기 위해서 마음은 몸이 향하는 방향에서 역방향을 취하는 것입니다. 몸은 어차피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백발백중의 사수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살 곳이라는 과녁 대해서 하나님의

뜻의 과녁이 적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를 버렸습니다. 이때에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발사되어 적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소중하지만 이삭 또한 버림으로서 이삭을 향하는 마음을 죽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사되고 적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순간 육체와 마음을 같은 방향을 취하게 했을 때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육체의 눈이 밧세바를 향할 때에 마음까지도 함께 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우리도 역방향 포지셔닝을 통하여 우리 몸이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백발백중으로 과녁에 적중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뜻이 적중하는 모습을 서서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삶의 현장 한 가운데서 역방향 포지셔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